



원대병원, 원광새마을금고서 발전기금 4천만원 받아

원광새마을금고(이사장 성시종)는 최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 개원 41주년 기념식에서 병원 발전을 위하여 4,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원광새마을금고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만 원의 발전기금 퇴직에 나섭으로써 지금까지의 누적 기부금은 모두 1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날 성시종 이사장은 “국내 우수대학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하는 첨단의학을 선도하는 일류병원으로 도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숭고한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원수=장양원 기자



장계면사보협, 5월 가정의 달 맞아 효박스 전달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광준·양정숙)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18일 장계면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 가까이, 효(孝)박스' 전달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마음 가까이, 효(孝)박스 전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년 실시해오던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사업을 대신해 이뤄졌다.

이번 꾸러미는 비쁜 농시절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농기노인 저소득 고령인 어르신들을 위한 추어탕, 곱탕 등 품보신 음식과 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한 파스, 비타민 등을 함께 담아 전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남원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고구마 심기 체험

남원시는 지난 15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귀농체험학교 수료자 남원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15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가족실습농장(주생면) 공동경작지에서 고구마 심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고구마 심기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기계사용 및 영농 재배기술 교육의 일환

으로 진행했으며, 고구마 외에도 곤달비 등을 공동으로 심고 수확까지 모두 실습해 볼 수 있도록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2일에는 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 회원 10명이 영농준비를 위해 재능기부로 실습농장 로터리 작업을 원료하고, 귀농귀촌동아리 흙실큠과 교육생이 함



께하는 영농체험활동으로 예비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체험·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최장 1년간 임시 거주하며 영농체

험 및 교육을 받고 지역주민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남원시가 1,772백만원을

투입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동 10호와 실습농장(3,300m²)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생활동에는 은퇴자 5가구, 일반 입주자 5가구 등 총 1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까지 15가구 중 8가구가 남원시에 정착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기획예산실·옹동면 직원들, 농촌일손돕기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옹동면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18일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에 나섰다.

이날 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농철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에는 류태영 실장을 비롯한 기획예산실과 옹동면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옹동면에 소재한 마늘 농가를 방문해 마늘쫑 수확과 비닐하우스 농작물 관리(1,500m²)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 향산사, 부처님의 날 맞아 성품 기탁

무주군은 지난 18일 무주읍에 소재해 있는 향산사가 지역사회 복지 전달과 주민행복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빵과 과일 음료수, 물 등을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향산사 성본 스님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지쳐 있는 상황이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주는 이 분들이 있어 이민족 견딜 수 있는 것”이라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음자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께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고 싶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향산사로부터 받은 성품은 무주군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등 90여 명에게 전달이 됐으며 지난 4월에도 떡과 음료수를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전달해 훈훈함을 전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상중 정읍시의장, 소상공인 든든한 버팀목 역할 충실

지난 18일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장(대표 김락현)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담아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조상중 의장은 선도적인 대응방안으로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이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함에 따라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락현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일터에 직접 찾아가서 아들의 고충에 귀기울이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조상중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난, 판로난, 품질향상 등 신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



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도 더불어 안정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가 더욱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정읍시 7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힘쓰는 등 상업의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여 이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새만금챔버리팀, 2021 한국여자바둑리그 참가

부안군 여자프로바둑팀인 새만금챔버리팀이 2021 한국여자바둑리그에 참가했다.

지난 17일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여자바둑리그 개막식에는 부안 새만금챔버리팀을 비롯한 8개 팀이 참가하여 5개월간의 대장정을 펼친다.

부안 새만금챔버리팀은 2015년에 창단하여 그간 부안군 소급팀이라는 평칭으로 참가하다가 이번에 2021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팀명을 새롭게 바꾸어 출전했다.

김효정 감독을 김다영4단, 이도현2단, 강지수2단 차주혜1단으로 구성된 새만금챔버리팀은 2019년우승 2020년 준우승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막식에서 새만금챔버리팀 선수들은 천혜의 명소 부안과 이곳에서 펼쳐지는 2021 새만금챔버리 흥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우승 5,500만원, 준우승 3,500만원, 3위 2,500만원, 4위 1,500만원 등 총 상금 1억 3500만원이 주어진다. /부안=김석진 기자

임실 강진면,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현장 접수

임실군 강진면이 타 코로나19 피해지역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 가구당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지금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 3억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의 기준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생계지원, 피해농업인지원 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다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현장 접수 기한은 내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